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아트폴리곤과 글라스폴리곤에서 열린다. 코라크리트 아루나는드차이의 '죽음을 위한 노래'.

역사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치유하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을 찾아서

<2>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제주 4·3, 태국민주화시위 등 소재 5명 작가 영상·설치미술 등 전시

유리로 둘러싸인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독특한 향기가 먼저 다가온다. 흰색 동근 좌대에 전시되어 있는 건 '어떤 날짜'가 적힌 꼬리표를 단 수십개의 돌맹이들. 향기의 진원지는 바로 제주에서 건너온 이 37개의 화산석이다. 잔잔한 소리가 깔린 전시장에 돌맹이와 함께 놓인 건 누군가가 기록한 '일기'다. '1948년 2월 8일' 꼬리표가 달린 화산석을 들고서 바로 '그날'의 일기를 조용히 읽어본다. 제주 4·3항쟁이 일어나기 불과 2개월 전의 이야기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시셀 톨라스의 'EQ_IQ_EQ'는 청각, 시각, 후각이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통해 역사의 한 순간으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열고 있는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을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전시공간으로 선택했

다. 선교사들의 차고지와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을 리노베이션한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과 글라스폴리곤은 매력적인 전시장소로, 5명의 참여작가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냅새 연구가이자 화학자인 시셀 톨라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감정과 지성을 탐색해왔다.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작가는 4·3항쟁 등 제주 역사와 영적 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전시된 '일기'는 1948년부터 2020년까지 70년간 매일 수기와 삽화로 자신의 삶을 기록해온 제주도민 양산하의 흔적이다. 4·3을 관통하며 현재까지 이어진 그의 기록은 개인의 역사와 동시에 공동체적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남은 자의 연대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37개의 일기를 선택했고, 37개의 화산석에 나노분자를 섞어 냄새를 입혔다. 관객들은 향기나는 돌을 들고, 꼬리표에 달린 날짜의 일기를 읽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아트폴리곤에서 만나는 코라크리트 아루나는드차이의 '죽음을 위한 노래'는 설치미술과 영상으로 이뤄진 작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대형 방석 위에 앉거나 누워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푸른빛이 감도는 전시실에는 태국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대형 노랑 오리 보트와 영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고유 의상, 마른 꽃잎, 대형 그림 등이 어우러져 있다.

태국에서 계속 진행중인 민주화 시위, 직접 방문해 접한 제주 4·3항쟁의 추모 행사, 필리핀의 민주적 저항 등에서 접한 역할받는 자들을 위로하

고, 남아있는 이들이 전하는 '애도의 작업'을 담은 '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다양한 음악과 영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백만가지 꿈을 갖고 있다'는 내레이션, 서로 맞잡은 손, 혼령을 위로하는 주술적 행위 등이 어우러진 작품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며 때론 숙연해지고, 때론 치유의 기운을 한껏 받는다. 30분 분량의 영상은 조금 긴 편이지만 이미 관람한 이들이 '놓치면 후회할 작품'으로 꼽고 있으니 꼭 감상할 것.

파트리샤 도밍게스는 글라스폴리곤 지하 공간을 활용해 '어머니의 드론' 등 여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래전 선교사가 머물던 생활공간인 터라 방, 화장실 등 공간마다 영상 작품을 비롯해 돌, 원주민의 의상과 가발, 마른 꽃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 작품을 전시중이다. 불리비아 열대 우림 화재 발생지 세워진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했던 작가는 남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삶을 애도하고, 칠레 산티아고 시위대를 감시하는 경찰을 고발하는 작품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그밖에 사제지 라할은 여러 세대를 거쳐 왜곡된 전설들, 디스토피아 미래에서 건너온 괴수들의 모습을 담은 드로잉을 선보이고 있으며 비엔날레 본 전시관에서 '행렬' 등을 선보이고 있는 김상문 작가의 설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지금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일대는 연두빛 짙을 티우기 시작한 나무와 풀림, 철쭉 등 온갖 봄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봄나들이로도 제격이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이며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동



'당신의 스스스스'전이 열리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창작소.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당신의 스스스스'전

이이남 스튜디오

'생명의 위로'전

이강하미술관

'Re:born 1953-2021'전

제 13회 광주비엔날레 주례전이 열리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인근에는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전시장들이 많다.

아트폴리곤 바로 옆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스동 1·2층에서 열리는 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레지던스 작가로 활동했던 이들이 비엔날레를 맞아 의기투합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전시 주제 '당신의 스스스스'전(30일까지)은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팬데믹을 겪은 인

류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주제로 꼽은 '시간, 죽음, 슬픔, 장례식'의 첫 자음을 딴 것으로 구해영·김승택·김혜연·민경·서법현·홍준호·김영나·김지희 등 8명의 참여작가는 각각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2분 거리에 자리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작가 스튜디오에도 볼거리가 많다. 이 작가의 대형 신작 등을 만나는 '생명의 위로-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다'전이 한창 열리고 있으며 카페, 로비, 계단 등 건물 곳곳에 '피에타상'과 디지털 산수 등이 작가의 대표작이 전시돼 있다.

이강하미술관에서는 비엔날레특별전으로 15일까지 'Re:born 1953-2021'전이 열린다. 고(故)이강하 작가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채로운 남도 풍광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다. 또 5·15갤러리에서는 이경아 작가의 '희망의 꽃'전(13일까지)이 열리며 양림미술관, 한희원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열립니다

명인명창추모사업회 초청 10일 첫 공연

(사)사물놀이 합음예술원의 공연 장면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21토요일상설공연 첫 무대로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명인명창추모사업회를 초청해 '신명나는 예술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금과 해금의 앙상블 '대해시나위', 국악가요 '난감하네', '섬진강', 소리 '신사랑가' 등이 마련돼 있다. 소리에 이은하, 최혜정, 김병혜 씨가 출연하고, 기타 정용주 씨, 대금 이용렬 씨, 아쟁·해금 서영민 씨, 장구·북 이명식 씨가 출연한다.

'명인명창 추모사업회'는 전통문화예술보존과

국악 명인 추모행사 등을 위해 2000년도에 설립됐으며 다양한 초청공연을 비롯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32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공모작품 분야를 판소리·산조무대, 국악창작무대, 연희·무용 무대 등으로 구분했으며 전문예술가(단체)들의 특화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무료 관람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며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 산책' 아카데미 강좌

13일 강수미 교수 '현대미술 공부법'...11월까지 다양한 강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2021년 제4기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를 4월부터 시작한다. '현대미술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근대미술부터 모더니즘미술, 포스트모더니즘, 미디어아트까지 근현대미술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오는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수강인원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0명(무료)으로 제한한다.

첫 번째 강의는 13일 오후 3시 미술사학자 강수미교수(동덕여대·사진)가 진행한다.

'현대미술 공부법:다공예술, 신엘리트주의의 퍼포먼스'를 주제로 열리는 강좌에서 강 교수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나와 현대미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왜 그리고 어떻게 현대미술인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선 현대미술 향유는 무엇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는 현대미술 감상법을 설명해 줄 예



강연한다.

이어 정영심 홍익대 교수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7월13일), 주하영 전남대 교수의 '제3세계 각성 현대미술과 후기식민주의' (9월14일), 김영순미술비평가의 '팬데믹(Corona 19 virus) 이후의 세계변화와 미술계의 대응' (10월12일), 주경란박사 퓨즈아트프로젝트 디렉터의 '미디어아트의 역사:뉴미디어아트, 예술과 과학 기술의 융합' (11월9일) 등이 이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석중 오대원 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대상

최근 열린 제40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및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KICDC) 지역위탁제에서 광주서석중학교 오대원 군 등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한국무용협회광주광역시지회가 주최하는 제40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및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지역위탁제가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광주학생교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300여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중등부 대상은 광주서석중학교 오대원, 월계중학교 홍수진, 서강중학

교 김지윤이 수상했으며, 고등부 대상은 광주예술고등학교 김윤리·강태경·박솔이가 차지했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지역위탁제 프리주니어 부문에는 광주중학교 박다정, 월계중학교 홍수진, 광주예술고등학교 장원석, 경신중학교 정희운이 선정됐으며, 주니어부문에는 광주예술고등학교 강태경·박연서·김민규와 광남고등학교 최명호가 선발됐다.

시니어부문에서는 조선대학교 원호민·최승원, 송원대학교 정슬·이제훈이 선발돼 세미파이널 진출자격을 얻게됐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